

# 견조한 펀더멘털 속 더딘 회복세 보인 유럽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안정적인 금리 전망, 견조한 자산 가격, 개선된 자금조달 환경, 긍정적인 임대료 성장 전망 등 유럽 상업용 부동산(CRE) 시장 회복을 위한 핵심 기반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중 회복 국면이 본격화될지는 여전히 지정학적 및 거시경제 변수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SEARCH QUARTERLY



**폴 스튜어트**

부동산 리서치 및 전략 대표



**벤 뱣쳐**

부동산 리서치 어쏘시에잇 디렉터



**죠 워렌**

부동산 리서치 디렉터

## 요약

### 경제

- 유럽에서는 남유럽 국가들이 성장을 주도하며, 지역별 회복 속도가 엇갈리는 ‘튜트랙’ 경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높아진 불확실성은 시장과 기업 심리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되돌아오면서, 당분간 금리는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동산 시장

-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로 남아 있으나, 유럽 상업용 부동산(CRE)의 거래 회복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현대적이고 퀄리티 있는 자산의 공급 부족은 중장기적 임대료 성장세를 지속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사이클에서는 수익률 하락(=가격 상승) 여지가 이전 사이클 대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 대출기관 간 경쟁이 강화되면서 차입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신규 투자(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 전망

유로존 경제는 2025년 3분기 0.3%<sup>1</sup>의 완만한 성장에 그쳤지만, 이러한 헤드라인 수치만으로는 지역별로 엇갈린 성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독일과 이탈리아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며 회복 속도가 ‘투트랙’으로 나뉘는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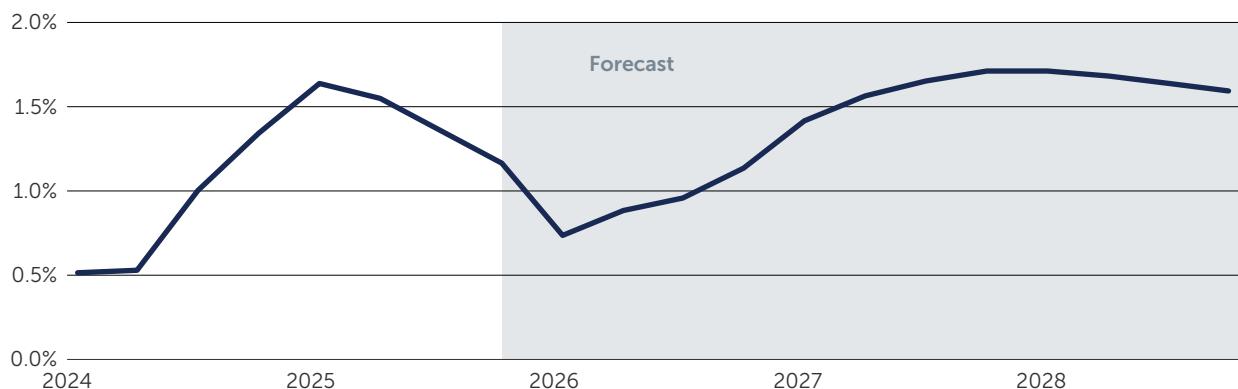
6개월간 완만한 개선세가 이어졌지만, 연말로 갈수록 기업 심리는 다시 둔화되었습니다. 유로존 종합 PMI는 12월 51.5로 하락해, 11월의 30개월 내 최고치(52.8)에서 낮아졌는데, 주로 서비스업 둔화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경제심리지수도 97.1에서 96.7로 소폭 하락하며, 통상적 신뢰 회복을 의미하는 100선을 하회했습니다.<sup>2</sup>

유로존 소비자물가(CPI)는 12월 2.0%로 하락하며 ECB 목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식품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빠른 편이었지만, 서비스·공업재·에너지 가격 압력이 완화되며 관련 영향이 누그러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함에 따라 ECB는 12월 회의에서 기준 리파이낸싱 금리를 2.15%로 동결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다만 장기 차입비용은 정책금리 흐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거래 가능한 스프레드(양적완화 이전의 정상 수준에 근접)와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세를 감안할 때, 전반적인 수익률(yield) 환경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입니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와 유럽의 성장세 유지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 금리와 정책금리 간 괴리도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로존 GDP는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 1.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2026년 성장률은 1.0%로 다소 둔화되고, 2027년에는 독일의 국방비 지출 확대가 경기부양 효과를 내며 1.7%로 다시 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sup>3</sup> 다만 이러한 전망은 지정학적 환경과 미국 정책 기조가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도표 1. 유로존 GDP 성장을 전망**



Source: Oxford Economics. As of January 2025.

1. Source: Oxford Economics, as of January 2026.
2. Source: Eurostat. As of January 2026.
3. Source: Oxford Economics. As of January 2026.

## 자본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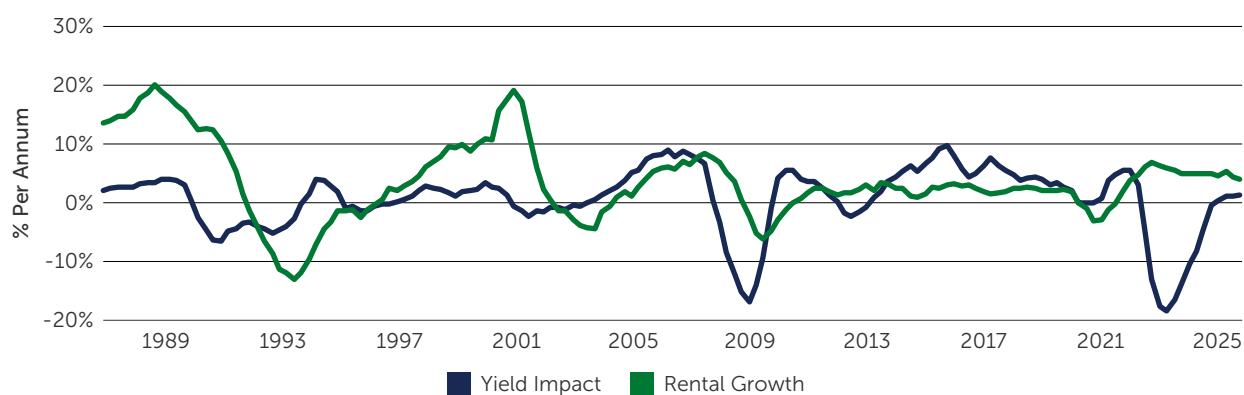
유럽 부동산 투자 거래량은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빠르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1~9월 거래 규모는 1,469억 유로로 전년 동기(1,463억 유로) 대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sup>4</sup>

부동산 가격은 2년 연속 보합세를 보였으며, 2025년 4분기 기준 전체 자산(All-Property)의 프라임 수익률은 5.1%<sup>5</sup>였습니다. 연말 기준 프라임 임대료는 연 4.3%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sup>6</sup> 현대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자산의 공급 부족은 임대료 상승의 핵심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미 위축된 신규개발 활동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양호한 성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금리 부담이 큰 환경에서는 현 사이클에서의 수익률 하락(가격 상승) 여지가 이전 사이클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기관의 움직임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Chatham Financial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대출 활동은 신규 인수와 리파이낸싱이 절반씩을 차지했으며, 전반적으로 마진은 안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선순위 대출기관(senior lenders)의 레버리지는 55~60%, 전문 대출펀드(debt funds)는 최대 70% 수준이었습니다. 대출기관의 선호 자산 범위가 확대되며 오피스·호텔·리테일 섹터의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출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차입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조기 회복 신호는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견조한 실질 임대료 상승, 프라임 자산 기준 150~200bp의 긍정적 수익률 스프레드, 개선된 대출기관 심리 등 통상적 투자 활성화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회복이 올해 실현될지는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 안정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표 2. 프라임 부동산 수익률 변화 vs. 임대료 성장률**



Source: CBRE, C&W, Barings Research. As of Q4 2025.

4. Source: RCA. As of Q3 2025.

5. Source: CBRE, Cushman & Wakefield, Barings Research. As of Q4 2025.

6. Source: CBRE, Cushman & Wakefield, Barings Research. As of Q4 2025.

## 임대 시장

### 오피스 부동산 섹터

오피스 시장에서는 2025년 3분기까지 유럽 전역 임차면적이 전년 대비 -1.5% 수준 증가에 머물며 수요가 부진했습니다.<sup>7</sup> 프랑크푸르트·더블린·암스테르담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런던·파리 등 게이트웨이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둔화되었습니다. 공실률은 2025년 3분기 9.6%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는 이전 사이클 고점(10%+)보다는 낮으며 글로벌 기준으로도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sup>8</sup> 다만 A급 오피스의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합니다. 바르셀로나 CBD(2.1%), 밀라노(2.7%), 뮌헨(3.5%) 등 초우량 입지 공실률이 극도로 낮다는 점은 ‘퀄리티 있는 자산으로의 이동(Flight to Quality)’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줍니다.<sup>9</sup>

유럽 오피스 개발 파이프라인은 축소되고 있으며, 2025년 3분기 기준 건설 중인 물량은 전체 재고의 3.8%에 불과합니다.<sup>10</sup> 건설 비용 상승과 건물 가치 하락으로 프로젝트 수익성이 악화되며 신규 공급 확보가 어려워지자, 기업들이 노후화된 사무공간 임대를 연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프라임 임대료는 향후 수년간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프라임급 오피스에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자금조달 및 비용 부담으로 신규 개발이 제약을 받으면서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노후 오피스의 프라임 수준 개보수)과 리퍼포징(repurposing; 용도 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LL에 따르면 레트로핏(retrofit; 기존 건물에 친환경 설비를 추가하는 개보수)은 전면 재개발 대비 리스크를 낮추면서 10–30%의 유리한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가 좋고 편의시설이 풍부한 도심의 역사적 지역은 규모 확장이 어려워 공급 확대에는 구조적 제한이 있습니다.

프라임 오피스에 대한 높은 수요는 임대료 흐름에서도 확인됩니다. 경기사이클 변동에도 불구하고 프라임 임대료는 2022년 이후 매년 4% 이상 꾸준히 상승했고, 최근 연 4.6% 증가해 장기 평균과 인플레이션을 크게 상회했습니다.<sup>11</sup>

**도표 3: 건설 중인 유럽 오피스 비중**



Source: JLL, C&W. As of Q3 2025.

7. Source Cushman & Wakefield. As of Q3 2025.
8. Source Cushman & Wakefield. As of Q3 2025.
9. Source: BNP Paribas Real Estate. As of Q3 2025.
10. Source Cushman & Wakefield. As of Q3 2025.
11. Source Cushman & Wakefield. As of Q3 2025.

## 리테일 부동산 섹터

유로존 소비 심리는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며 관련 지표는 12월 -13.1로 하락해 장기 평균치(-11.0)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매 판매는 견조한 모습을 유지했으며, 11월 유로존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연 2.2% 증가했습니다.<sup>12 13</sup> 노동시장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sup>14</sup>, 유로존 실업률은 6.3%로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또한 2025년 3분기 임금 상승률은 3.0%<sup>15</sup>로 인플레이션(2.0%)을 계속 상회했습니다.<sup>16</sup> 소비자들의 신중한 소비 성향이 지출보다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견조한 노동시장과 실질임금 상승은 향후 소비를 지지하는 긍정적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JLL은 리테일 임대시장에서 시장 규모, 소비자의 소득 수준과 구매력, 관광 지출을 핵심 고려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옴니채널 운영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즉시 수령·배송이 가능한 대형 매장에 대한 수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고령화 추세와 건강·웰니스 산업 확대도 리테일 자산의 임차인 구성을 다각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리테일 자산 보유자와 자산운용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BRE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센터는 방문객 증가의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중반 연 6.7%였던 유럽 프라임 임대료 상승률은 4분기 3.6%로 크게 둔화했습니다.<sup>17</sup> 이는 온라인 리테일이 비식료품 오프라인 매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최근 반등세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기존 전망과도 부합합니다. 인플레이션 급등 국면은 지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매장 내 매출은 증가해 명목 매출 대비 임대료 비율 (effort rates)이 개선(하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Capital Economics는 향후 3년간 유로존 리테일 임대료 상승률이 연평균 2.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망은 다소 낙관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표 4: 유럽 프라임 임대료 상승률**



Source: CBRE, Cushman & Wakefield, Barings Research. As of Q4 2025.

12. Source: Eurostat. As of December 2025.

13. Source: Eurostat. As of November 2025.

14. Source: Eurostat. As of November 2025.

15. Source: Eurostat. As of Q3 2025.

16. Source: Eurostat. As of December 2025.

17. Source: CBRE, Cushman & Wakefield, Barings Research. As of Q3 2025.

## 산업용 부동산 섹터

JLL에 따르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2025년 3분기 유럽 물류 임대 활동은 다시 모멘텀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공급망 관련 의사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면서 물류창고에 대한 신규 수요가 재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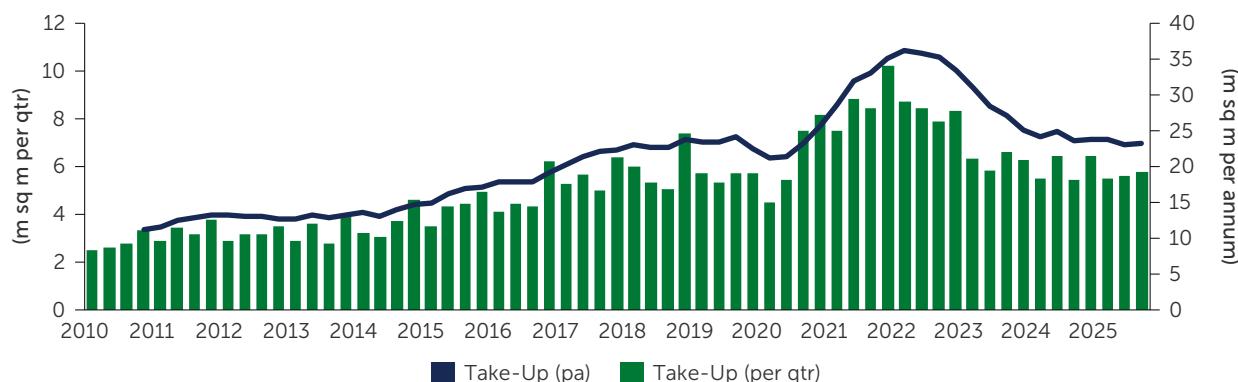
2025년 3분기 유럽 물류 임대 활동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며, 임차 면적은 총 570만 제곱미터로 전 분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sup>18</sup> 분기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 기준 누적 9개월 임차 면적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4%) 했으나 팬데믹 이전 5년 평균 대비로는 여전히 약 10%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시장에서는 현대적이며 ESG 기준을 충족하는 물류 공간이 부족해 임대 활동에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3PL(3자 물류업체)이 전체 임차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며 수요를 주도했으며, 제조업 역시 약 25%를 차지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신기술 및 방위 산업 성장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피한 유일한 부문이었습니다.<sup>19</sup>

JLL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유럽 물류 시장의 공실률은 6.3%로 재상승해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과거 사이클 정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공실률 증가는 주로 노후화된 물류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신·현대식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편 신규 공급은 2023년부터 둔화되고 있으며, CBRE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공급된 물류 공간은 총 1,670만 제곱미터로 직전 5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공급 둔화는 향후 시장의 공실 흡수를 촉진하고 임대료 성장세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베어링은 건물보다 토지 가치 비중이 큰 물류 자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노후화 위험에 대한 방어력이 높고, 입지 희소성으로 인해 공급 비탄력성이 크며, 지속 가능한 임대수익 성장 측면에서도 더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스트마일 물류시설과 항만 물류시설 모두 이러한 요건을 대체로 충족하지만,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글로벌 무역보다 전자상거래 수요가 더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베어링은 장기적 위험이 비교적 낮은 라스트마일 물류 자산을 더욱 선호합니다.

2025년 4분기 유럽 프라임 산업용 임대료는 0.7%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4.6%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스페인, 아일랜드, 독일, 영국 등이 주도했습니다.<sup>20</sup>

**도표 5: 유럽 산업용 부동산 임차면적**



Source: JLL. As of Q3 2025.

18. Source: JLL. As of Q3 2025

19. Source: JLL. As of Q3 2025

20. Source: Cushman & Wakefield. As of Q3 2025.

## 주거용 부동산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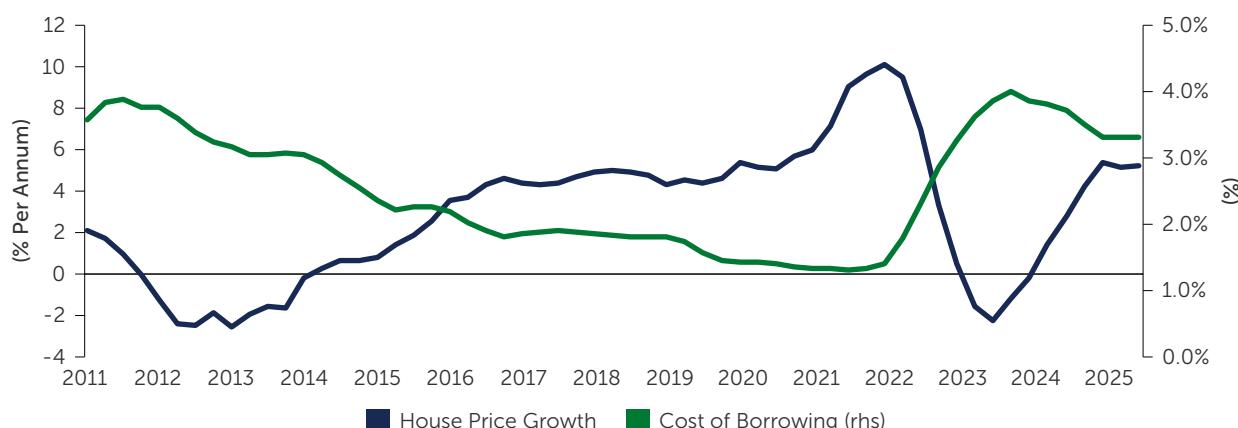
주택 가격 상승률과 차입 비용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2024년 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완화되자 곧이어 주택 가격 상승률도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유로존 주택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증가세 둔화의 조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5.1% 상승해 전 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sup>21</sup> 국가별로는 편차가 컼는데, 스페인은 견조한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연 +12.9%)을 기록한 반면,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 상승률이 +0.7%에 머무르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존 임대료 상승률은 2025년 4분기 연 2.9%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2.0% 상승한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상회했습니다. 이는 장기 추세치(연 1.6%)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주거 임대료의 핵심 경기 변동 요인은 실질 임금(인플레이션 조정 임금) 증가이며, 관련 전망은 긍정적입니다(리테일 부동산 섹션 참조).<sup>22 23</sup>

임대주택의 심각한 공급 부족, 제한적인 신규 주택 건설, 낮은 주택 구매 여력은 중기적으로 임대료 상승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실업률 상승(이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 혹은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로 인해 임대료 상승이 억제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용 주거시설의 경우, 미국 비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해외 유학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페인은 스페인어권·라틴계 학생을 흡수하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 또한 비자 부담 요인이 있음에도 명문 대학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여전히 높은 관심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영어 강의 과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유럽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상위권 대학은 PBSA(민간 학생 주거시설)의 사업성 유지에 필요한 높은 임대 수준을 감당할 수 있어, 향후에도 투자자의 핵심 관심 대상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표 6: 유로존 주택 가격 상승률 vs.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비용**



Sources: OECD, ECB. As of Q3 2025.

21. Source: OECD. As of Q3 2025.

22. Source: Eurostat. As of December 2025.

23. Source: OECD. As of Q4 2025.

## 베어링 부동산 리서치팀

다양한 섹터 및 지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 리서치팀은 전세계 시장, 자산군, 셀/바이 사이드를 포괄하며, 전문 분야 또한 자산 평가, 법제, 기술적 분석, 학술 연구 등 광범위합니다. 팀은 부동산 관련 각종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을 통해 보다 나은 부동산 투자 의사 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폴 스튜어트(Paul Stewart)**

부동산 리서치 및 전략 대표



**벤 댓쳐(Ben Thatcher)**

어쏘시에잇 디렉터



**조 워렌(Jo Warren)**

부동산 리서치 디렉터

베어링자산운용은 기관 투자자 및 보험사, 판매사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4,819억 달러\* 이상의 수탁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험사 매스무추얼(MassMutual)의 자회사인 베어링자산운용은 채권, 실물 자산, 캐피털 솔루션 등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및 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 공·사모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 중요정보

본 자료에서 언급된 투자 결과, 포트폴리오 구성 및 사례는 단순 참고용이며, 결코 미래 투자 성과 혹은 미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와 투자에서 발생하는 향후 소득 가치는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언급된 투자 결과, 포트폴리오 구성 및 사례는 단순 참고용이며, 결코 미래 투자 성과 혹은 미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의 구성, 규모 및 위험은 본 자료에서 제시된 사례와 현저히 다를 수 있으며, 투자의 향후 수익 혹은 손실 여부에 대해 보증 및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는 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해지할 계획이나(UH형 제외)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일드채권 투자시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베어링자산운용(BARING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베어링자산운용이 제공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투자권유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의 어떤 내용도 투자 및 세금, 법적 자문이나 권유 행위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현재 의견 및 예상, 예측에 근거한 예측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예측 정보를 간신히거나 수정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결과는 예측 자료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여기에 인용된 제 3자로부터 얻은 정보가 발행일을 기준으로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떠한 투자 결정도 본 자료의 정보에 의존하여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베어링은 전 세계 베어링 계열사의 자산운용 및 관련 사업의 상표입니다. BARINGS LLC, BARINGS SECURITIES LLC, BARINGS (U.K.) LIMITED, BARINGS GLOBAL ADVISERS LIMITED, BARINGS AUSTRALIA PTY LTD, BARINGS JAPAN LIMITED, BARINGS REAL ESTATE ADVISERS EUROPE FINANCE LLP, BARING ASSET MANAGEMENT LIMITED, BAR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 BARING FUND MANAGERS LIMITED, BARING INTERNATIONAL FUND MANAGERS (IRELAND) LIMITED, BARING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BARING SICE (TAIWAN) LIMITED, BARING ASSET MANAGEMENT SWITZERLAND SARL, BARING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 등은 BARINGS LLC의 금융서비스 계열사로(단독으로는 “계열사”) “베어링”으로 통칭합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독자의 투자목적, 재무상태 또는 구체적인 니즈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투자자문, 권유, 리서치 또는 특정 증권, 상품, 투자, 투자전략 등의 적합성 또는 적절성에 대한 권고가 아니며 그러한 행위로 인식되어서도 안됩니다. 본 자료는 투자 전망 또는 예측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베어링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절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언급된 서비스, 증권, 투자 또는 상품은 잠재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관할권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및 상표

COPYRIGHT © 2026 BARINGS. 본 자료의 저작권은 베어링에 있습니다. 본 자료에 제시된 정보는 개인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베어링의 동의 없이 변형,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BARINGS (또는 베어링)과 로고 디자인은 BARINGS의 상표이며 미국 및 전 세계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BARINGS에게 있습니다.

베어링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 심사필 제 26-5197711(2026.02.20-2029.02.19)

BARINGS.COM

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31일